

숫자로 본 이라크

65



점령 4
이라크

점령 4년

50만 명

4년 동안 사망한

인 (2006년 10월 영국 의학 잡지
〈랜셋〉이 발표한 통계)





아프가니스탄 · 이라크 파병 한국군 철수

노무현의
희



북점령 중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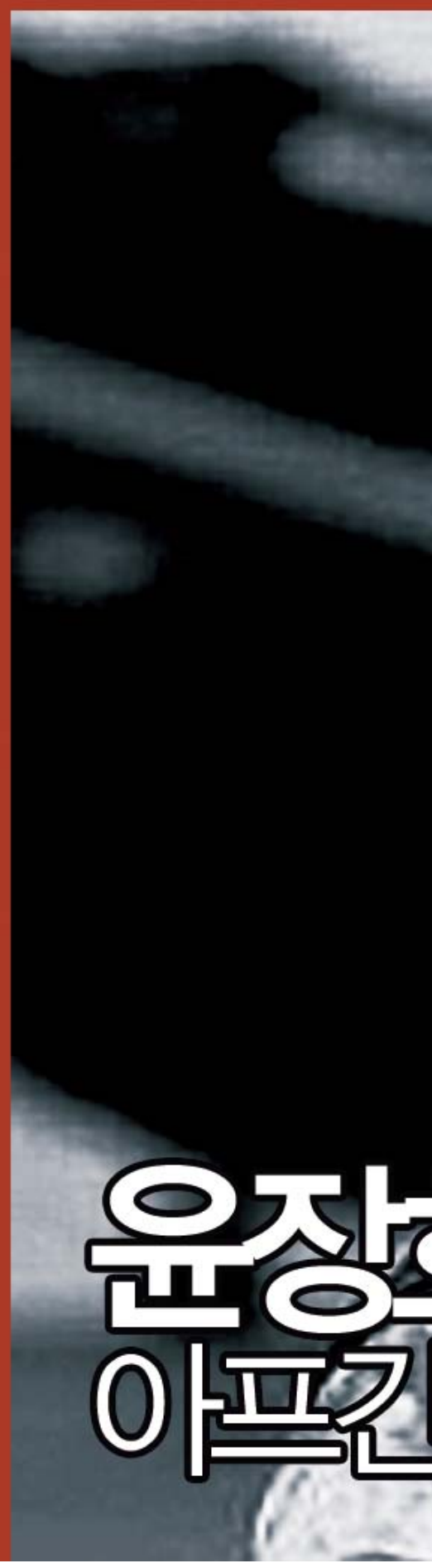
파병 정책으로
화생된 한국인들





김선일

이라크에서 2004년 6월 사망



윤장호
아프간



곽경해(좌) · 김만수(상)
(오무전기 노동자들)

이라크에서 2003년 11월 사망



호
에서 2007년 2월 사망

숫자로 본 이라크 전쟁

3,000



미군 사
3천1백
여하가

점령 4년

336명

망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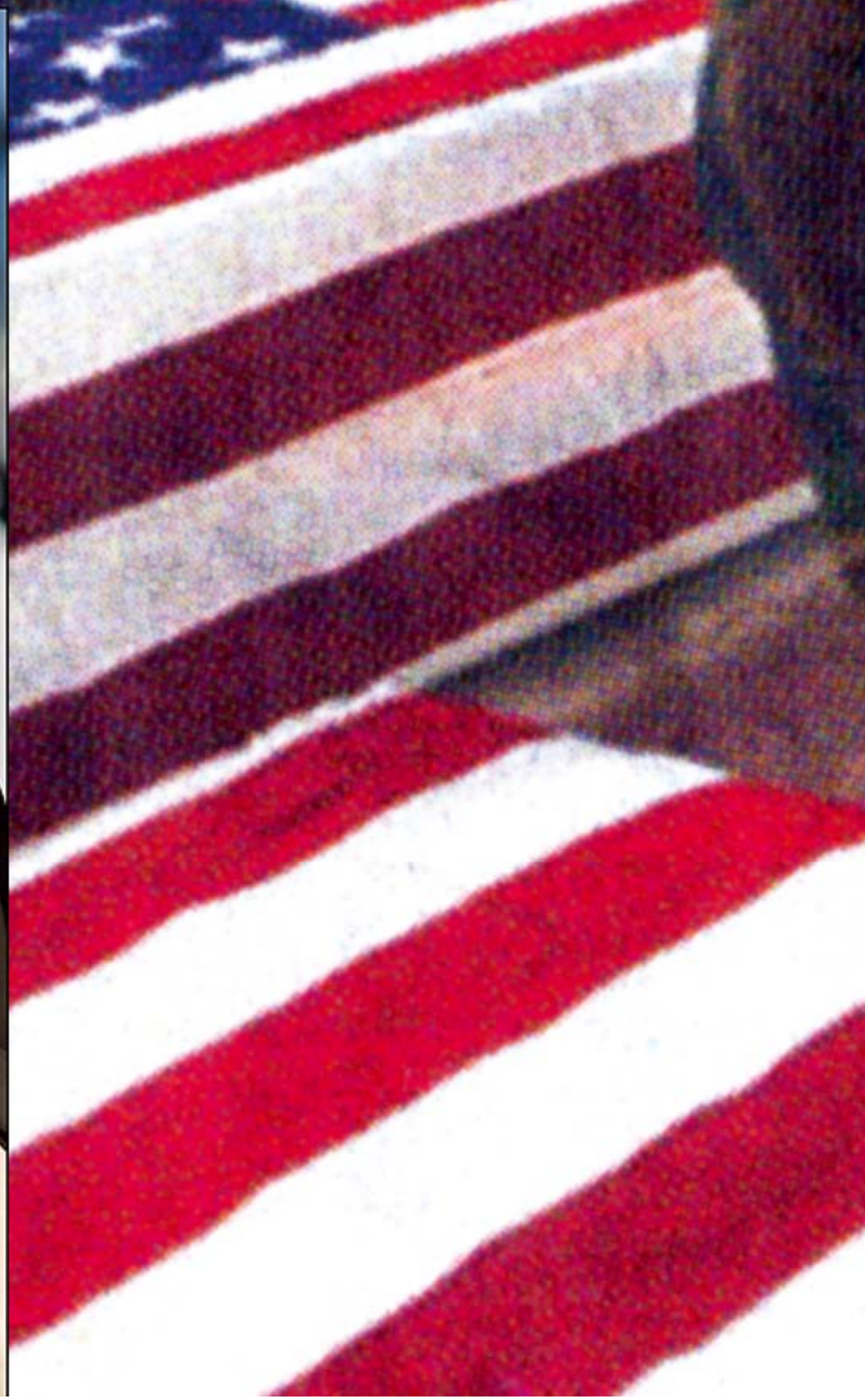
11명 등

첫 시위까지



연평관

(2월 8일 현)



홍사당사주

(재)



아프가니스탄 · 이라크
파병 한국군 철수

아프가니스탄
소

“카불에서 조
치할 것 없다”

북점령 중단

한국군 장교,
탄 민간인에게
총을 들이밀며

인품 보석을

으며

사오시
이 충으로
쏘 버리겠

아프간 파병 부대인
다산부대에서 근무했
강주 씨가 말하는

의면

다”고 협박

했던

‘아프간 파병의 진실’

숫자로 본 이라크

1,00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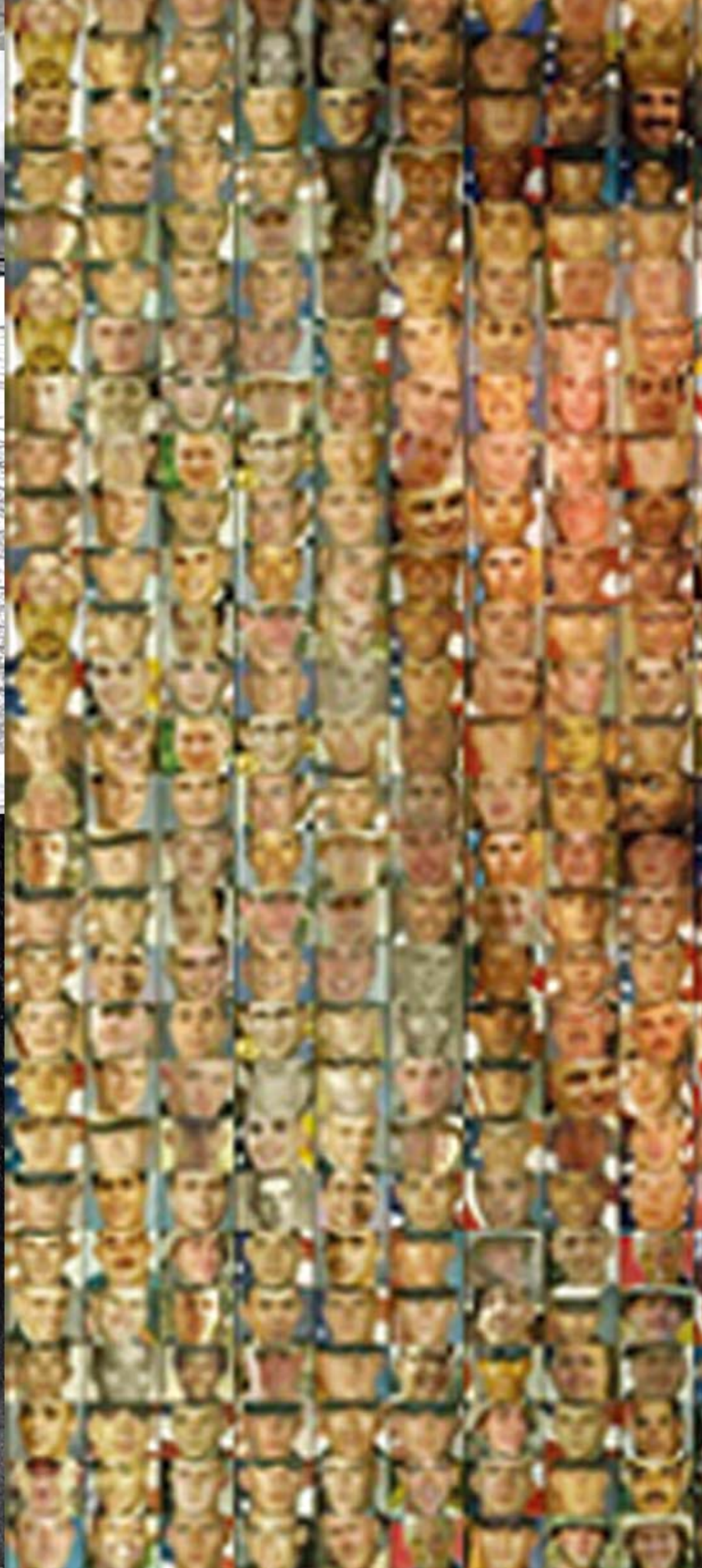


조지 부
점령 4
쏟아부

점령 4년

조위

씨가
년 동안
은 전쟁 비용



반면 그 동안 마
대폭 축소돼 노숙
빈부 격차는 갈수
지난 1975년 이후



국내 빈곤층 대상 복지 혜택은
수혜자들은 크게 늘어났다.

특히 심화하여 2005년 극빈층이
후 사상 최다인 1천6백만 명을 기록했다.